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6일째인 지난달 31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며 파도가 높아지자 현장 지휘소가 차려진 백령도 장촌포 해안에서 해병대원들이 장비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물 아래 장병 40여명이 있는데…"

실종자 수색작업 기상악화로 중단

태풍급 유속 심해잠수복 속수무책

천안함 실종자 구조작업을 벌이던 해군 특수전여단 수중파괴대(UDT) 요원이 작업중 숨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 당국이 심해잠수복 투입을 검토 중이지만 당장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더 거세지기만 하는 유속(流速) 때문에 수면에서 잠수복까지 공기를 공급하는 이른바 '생명줄'이 끊기거나 장애물에 얽혀 잠수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이날 함미 발견해역의 최대 유속은 일반 잠수사의 이동속도 0.8노트(0.41㎧)의 4.5배나 되는 3.69노트(1.9㎧), 함수 발견해역의 최대 유속은 2.33노트(1.2㎧)에 달할 전망이다.

달과 태양의 인력(引力)으로 만조때 바닷물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지는 사리의 영향으로 유속은 당분간 계속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속에서는 심해잠수복과 수면의 공기공급장치를 연결하는 '생명줄'에 지나친 부하가 걸려 자칫 치명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차주홍 부회장은 "심해잠수복은 통상 2노트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협회 규정상 무리하더라도 최대 2.5노트까지 쓸 수 있게 돼 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해잠수복을 투입할 경우 빠른 유속에 떠내려 가는 거리를 감안해 멀리서부터 길게 호스를 늘어뜨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천안함의 잔해 등 장애물에 호스가 걸려 끊길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심해잠수복 역시 질소마취와 산소중독 등 잠수병에 취약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잠수사가 지니고 내려갈 수 있는 공기의 양이 제한돼 있지 않기에 유속 문제만 해결된다면 비교적 장시간 밑바닥에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구조활동에 들어가는 것은 산 사람이 죽으러 가는거나 마찬가지"라며 유속이 가라앉기 전에는 안전한 잠수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백령도 현장의 구조대원들은 동료를 잃은 슬픔과 죽음의 두려움에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동남 한국구조연합회장은 "어제 한 대원이 순직하면서 동요도 있었고 군의 협조부족 문제를 들어 철수하자는 말도 나왔지만 이곳에 머무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물 아래에 우리 장병 40여명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떠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현재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는 해군 해난구조대(SSU)와 UDT 요원, 민간 구조대가 안전규정까지 어겨가며 목숨을 건 반복잠수를 강행하고 있지만 UDT 요원 한주호(53) 준위가 작업 중 숨지고 다른 대원들도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에 몰린 상황이다. /연합뉴스

"아까운 분 잃었습니다, 미안합니다" 故한주호 준위 빈소 찾은 실종자 가족

"뭐라고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천안함 실종자 가족 7명이 실종자 구조 작업중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찾았다.

한 준위는 지난 30일 오후 아직도 배 안에 갇혀 있을 후배 장병들을 살리기 위해 수중 작업을 하다 실신해 순직했다. 이날 오전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를 출발한 실종자 가족들은 빈소에 도착하자 자신의 가족을 구하려다 숨진 한 준위의 영정 사진을 보고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가족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영정 앞에 선 뒤 할 말을 잃은 듯 한동안 고인을 바라보기만 했다. 국화꽃을 한 송이씩 영정 앞에 놓은 가족들은 절을 하며 고인을 애도했다. 가족들이 한 준위의 아내와 자녀, 형 등 유족들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빈소는 이내 울음바다로 변했다.

실종자 정범구 상병의 할머니 이상옥씨는 한 준위의 아내인 김말순(56)씨의 손을 붙잡고 흐느끼며 "정말 미안합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할머니에게 "이건 아닙니다"라며 "우리 금쪽같은 내 새끼 아버지인데.."라고 오열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조문을 마친 후에도 유족들과 함께 울며 슬퍼했다.

빈소에는 동료 및 선·후배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이날 오전 빈소를 찾아 한 준위에게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서한 뒤 유족들을 위로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 준위는 영웅적인 사람"이라며 "앞으로 추가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준위의 영결식은 1일 오전 11시 국군수도병원에서 해군장(葬)으로 치러지며 수원화장장에서 화장 절차를 거쳐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침몰 당시 도대체 무슨일이…"

내부 폭발·외부 타격·암초 좌초·노후 파괴설 등 추측만 무성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한 지 지난달 31일로 엿새가 지났지만 침몰 당시를 말해주는 구체적인 상황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사고 원인은 내부폭발설과 외부타격설, 그리고 암초 좌초설 등 3가지로 구분되지만 최근에는 외부 타격설이 힘을 받고 있다.

이 경우 어뢰에 의한 가능성과 기뢰에 의한 타격으로 다시 상황이 나뉘어진다. 물론 타격 주체로는 북한일 가능성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고, 6·25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다른 가능성의 경우에는 주체가 불분명해지게 된다.

◇어뢰냐, 기뢰냐=외부 타격설의 핵심은 어뢰냐, 기뢰냐로 좁혀진다. 특히 어뢰일 경우에는 북한의 개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군쪽을 소스로 한 일부 정보를 토대로 천안함 침몰에 앞서 초계함이 사고 해역으로 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관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북한 잠수정 부대에서 어뢰를 장착이 가능한 반잠수정이 4대나 출동했다든지, 이상한 징후가 발견됐고 이를 한국과 미국군의 정보계통에서 포착했다든지 하는 내용이 이런 관측의 핵심 항목이다.

만일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침몰을 전후해 북한군의 동향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기뢰 또는 폭뢰에 의한 침몰 가능성도 여전히 유력한 가상 시나리오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폭뢰를 싣고 다니던 천안함이 폭뢰 한 개를 유실한 적이 있는데 이 게 부딪쳐 폭발됐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북한이 의도적으로 폭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암초충돌 등 사고 가능성은 없을까=해군은 30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고 브리핑에서 "함수 쪽 절단 부위 사진 촬영과 떠오른 물체를 보면 폭발이나 그을음 흔적은 없고 불에 탄 물체도 없다"며 내부폭발 가능성은 배제했다. 게다가 현장 생존자 등이 사고현장에서 화재나 기름 및 화약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이 해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암초설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국방위에서 내부 소행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피로 파괴(Fatigue Fracture)' 가능성있나=일부에서는 '피로 파괴'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건조된지 20년이 지난 천안함의 용접 부위에 미세한 균열이 누적돼 외부 충격으로 함정의 무게중심에서 절단된 듯 두 동강이 났다는 주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그러나 "해군 역사상 이러한 사례가 없으며, 매일 철저히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군 책임론 불가피=진상규명이 어떤 방향이 되더라도 군 책임론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군이 천안함의 교신기록 등 사고의 진상을 밝혀 줄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도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의혹만 확산시켰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특히 군은 사건 발생 직후 구멍에 따른 침몰이라고 했다가 '절단'으로 말을 바꿨다. 이는 내부 폭발이냐 외부 공격이냐를 가르는 주요 판단 기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진상규명 열쇠 교신일지 공개될까

항로 이탈·함포 사격 등 의혹 풀어줄 단서

지난달 26일 천안함이 침몰할 당시 천안함과 평택의 2함대사령부, 인근 초계함인 속초함끼리 주고받은 교신내용이 이번 사고를 규명할 '핵심 키'로 부각되고 있다.

천안함이 평소 다니던 항로를 빗겨갔다가 사고가 터졌고, 속초함에서 '새떼'를 향해 76㎜ 함포를 130여발 가량을 퍼부은 것은 두 함정이 육상기지로부터 모종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교신록이 의문을 풀어줄 결정적 단서이기 때문이다.

특히 두 함정의 임무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첩보였다면 이번 사고 원인이 북한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정부와 군당국은 각종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이번 침몰사고에 북한이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꼬리를 물고 있는 각종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교신록 공개가 불가피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안함은 지난 26일 이 항로로 진입했고 오후 9시25분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함미와 함수가 절단되면서 침몰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고 당일 기상이 워낙 나쁘고 바람을 막기 위해 간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장수만 국방차관과 김중련 합참차장,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은 30일 국회로 김형오 국회의장을 방문해 30여분간 비공개로 보고한 자리에서 "그 항로는 작년 대청해전 이후에 북한이 계속해 보복을 경고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 확보차원에서 백령도 아래쪽 항로를 이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인근의 속초함에서 새떼를 향해 76mm 함포를 5분간 130여발을 발사했다는 것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합참은 이후 미상의 물체가 새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76mm 함포는 대공포가 아니라 대함용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반잠수정이나 잠수함을 의심하고 집중 사격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